

U-반딧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방송통신중·고등학교

U-반딧불

2019 VOL.91



CONTENTS | 목차

01. 특별기고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인사말

방송중·고 학생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_ 원주고 김병철 교장선생님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전남여고」 고교시절 마지막 소풍 - 김예원 기자(3-1)
「호원고」 3학년 마지막 체육대회 - 김영주 기자(3-4)
「상동고」 상동고을 경사 났네! - 서승희 기자(2-3)
「강릉제일고」 늦깎이 학생들의 즐거운 소풍 - 이미경 기자(3-1)
「포항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그 곳, 문경새재를 다녀오다. - 김수현 기자(3-3)
「진주고」 더 높은 꿈을 향하여! 달리자! - 최민경 기자(3-1)
「수원제일중」 6월의 시작, 신나는 체육대회 - 김향숙 기자(3-3)
「남춘천중」 우리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체육한마당잔치 - 최동순 기자(2-1)
「전라중」 나이를 잊는 꿈같은 시간 - 민경자 기자(2-3)
「포항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 정순진 기자(2-1)

학교 활동사진 소개

「춘천고」 용산전쟁기념관을 다녀오다 - 김상원 기자(3-1)
「원주고」 우리 모두 함께 떠나는, 소풍가는 날 - 길경애 기자(3-2)
「황지고」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오다 - 박성애 기자(3-1)
「춘천여고」 강원도립화목원을 다녀오다 - 윤금옥 기자(3-1)
「경상중」 신나는 운동회 - 윤복희 기자(2-4)
「광주북성중」 교실을 벗어나 즐기는 체험 - 김순례 기자(2-1)
「광명중」 누가 더 잘하나 - 조은혜 기자(3-1)

학교생활 소개

「전남여고」 전남여고의 이곳저곳 - 김예원 기자(3-1)
「강릉제일고」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 이미경 기자(3-1)
「아현중」 설레는 학습회의 - 김정숙 기자(3-1)
「경원중」 즐거운 동아리시간 - 이연순 기자(2-1)

학교 소식

「수도여고」 자랑스러운 수도여고 국악인 - 나금숙 기자(2-1)
「강릉중」 마음의 전달식 - 이미애 기자(3-1)

03. 아름다운 만남

보고싶어요! 선배님

「서현고」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이민식 졸업생) - 배영두 기자(3-2)

사랑해요! 선생님

「남춘천중」 아름다운 만남(정명진 교장선생님) - 최동순 기자(2-1)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수도여고」 거울 - 심영자 학생(2-1)
「대전여고」 울릉도를 아시나요? - 조계순 기자(3-2)
「학성고」 봄 - 권선애 학생(2-1)
「수성고」 시 - 주노라 학생(3-1)
「호원고」 하루 - 김영택 학생(3-1)
「서현고」 우리 같이 갈까요 - 윤경순 학생(3-1)
「화명중」 화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 이규봉 학생(2-1)
「대전봉명중」 산책길에서 - 이경연 기자(3-2)
「주성중」 그리움 - 조순희 기자(2-1)
「전라중」 봄이 오는 길목에서 - 민경자 기자(2-3)

수필

「학성고」 소풍 - 서미순 학생(2-2)
「남춘천중」 나의 오뚝이 인생 도전기 - 최동순 기자(2-1)

기행문

「전남여고」 우리들만의 수학여행 - 김예원 기자(3-1)
「수성고」 안산, 시흥 갯골 자연생태공원을 둘러보고 - 백종태 기자(2-1)

05.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소식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소식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소식

06. 홍보 웹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소개_여러분들의 끼를 발산해 보세요!

01

특별기고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인사말

-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손찬희 소장 -

방송중·고 학생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 원주고 김병철 교장선생님 -





손 찬 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따뜻한 봄,

신입생분들은 다시 학생이 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재학생분들은 한동안 못 봤던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난다는 기쁜 마음으로 학기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생활은 어떠셨나요? 새로 사귄 학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녀야 할 그 때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누리지 못했던 학창시절을 즐겁게 보내며 추억을 만들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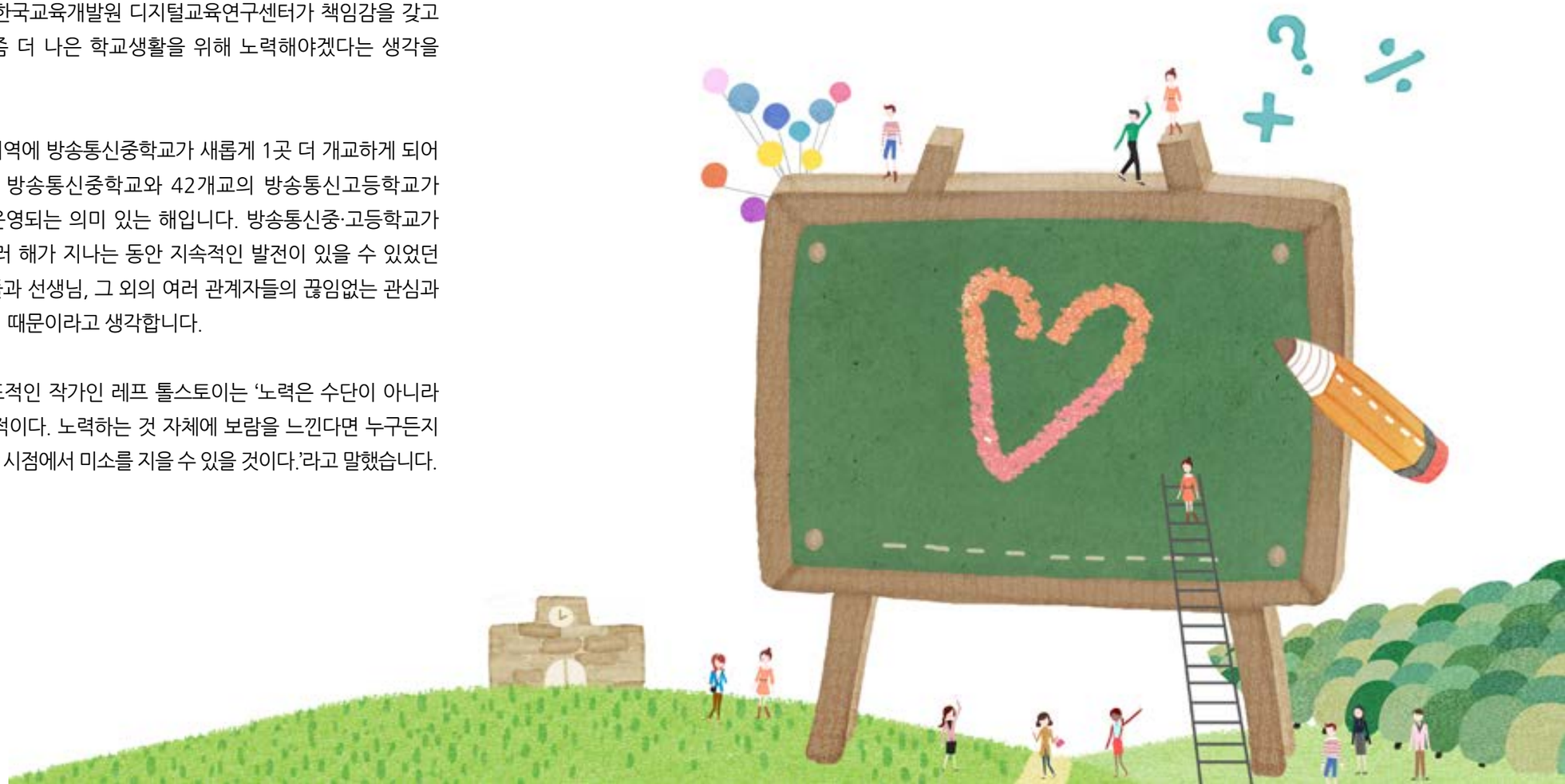
체육대회, 현장 체험학습 등 학생기자분들이 제보한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알차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진 속 여러분들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서 그 행복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의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충남지역에 방송통신중학교가 새롭게 1곳 더 개교하게 되어 총 24개교의 방송통신중학교와 42개교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운영된 지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과 선생님, 그 외의 여러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인 레프 톨스토이는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력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그 과정 자체 속에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의 기쁨과 보람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입학할 때의 포부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며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처럼 미소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병 철
원주고등학교 교장
전국 방송고 교장협의회장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망설임 끝에 대단한 결심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문을 활짝 열고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 중등학교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매달 격주로 일요일 등교하여 배움에 정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마 쓰시다 전기(현재의 파나소닉)' 창업주로서 570개의 산하 기업에 종업원 13만 명이 있는 대기업으로 만든 경영의 신이라 회자정리 되는 '마 쓰시다 고노스케(1894-1989)'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마 쓰시다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9세 때 소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화로, 자전거 판매점의 사원이 되어 고된 일과 주인의 호통 속에서 밤마다 어머님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했었지만, 85년이 지난 후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마 쓰시다 회장은 자신이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답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은혜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며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도 오히려 하늘이 주신 큰 은혜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묻자 그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살이 넘었어도 30대의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마찰을 하고 있으며, 소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으니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 쓰시다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가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지녔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의 어려웠던 시절을 시련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어떤 위기라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지개는 희망을 상징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지개가 절대로 뜨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무지개가 뜨지 않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에서 눈물이 없이는 무지개가 뜨지 않을 것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잘 닦인 길만 바라보며 가지 말고 힘들겠지만 자신 앞에 있는 자갈길을 벗 삼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간직하신 소박한 꿈이 조금씩 영글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등산을 할 때 낯선 새로운 길에 접어들면 마음이 두근거리듯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첫발을 디딜 때의 그 감회와 결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포기하지 마시고 학창시절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학교 활동사진 소개

학교생활 소개

학교 소식





학교 활동 소개

고교시절 마지막 소풍

김 예 원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5월 19일 전남여고 부설 방송고 학생들의 소풍날. 날씨가 좋지 않아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안 천사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소풍이라 들뜨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지 소풍가는 버스 안에서 웃음꽃이 폈습니다.



천사섬은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섬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중 증도를 갔습니다. 증도는 신안군의 보물선이라 불리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섬이라 알려져 있고, 그중 짱뚱어 다리가 유명합니다. 길이가 470m나 되어서 가는 길에 몇 번이나 멈춰 서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짱뚱어 다리를 걷고 있던 중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친 다리로 소풍 온 학우님을 돌보시느라 정작 본인은 비를 맞은 채 제자만 비를 가려주며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으며 한 장이라도 더 예쁜 추억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고, 시간은 훌쩍 지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소풍에 하이라이트는 점심시간! 점심을 먹기 위해 다 같이 바닷가 야영장으로 갔습니다. 보쌈과 김치, 부침개 등 이것저것 펼쳐 놓고 나누어 먹으니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주변을 더 구경하는데 아카시아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3학년 마지막 소풍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날씨는 비가 오락가락 내려 아쉬움이 컸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학년 마지막 체육대회

김 영 주 |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4반

2019년 6월 10일 호원고 부설 방송고에서는 교내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시작으로 지난해 우승 학년의 우승기 반납, 선서, 본격적인 체육대회 시작 전 몸풀기 운동 후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학년은 흰색, 2학년은 파란색, 3학년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우리 팀 이겨라!'라는 각 팀을 응원하는 엄청난 함성과 함께 개성이 넘치는 응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오전 종목으로는 큰 공 릴레이, 2인 1조 커플 달리기, 파도타기, 낙하산 릴레이, 선생님들과 함께 펭귄 릴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경기에서는 1학년 440점으로 앞서나갔으며, 2학년은 370점, 3학년은 430점으로 3학년이 1학년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쯤 오전 경기를 종료하고 체육대회의 최고의 즐거움인 점심시간! 각반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힘들게 준비해온 음식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쪽 스티로폼 박스에는 밥과 국을 다른 박스에서 불고기와 홍어무침 등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점심시간에 빠질 수 없는 학생들이 있죠? 한 손에는 나무젓가락 한 손에는 빈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만 가져는 개구진 학우들. 이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또한, 다른 반끼리 서로 음식을 나눠주고 받는 정(情)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날 학생회에서 건의사항 중에 하나였던 학생 급식소를 처음으로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학생과 소통하는 학교 중에 호원고 부설 방송고가 1등 아닌가?' 라는 기자의 100% 주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후 1시 30분쯤 오후 경기가 시각 되었으며, 첫 번째 종목으로 림보 경기. 그리고 체육대회 경기 중 제일 재미있다는 신발 양궁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역시나 경력이 많은 3학년이 1등, 1학년이 2등, 2학년이 3등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협동심을 볼 수 있었던 단체줄넘기, 선생님들과 동문회 선배님들이 참가한 시너지파워 경기, 마지막으로 단체 줄다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경기를 마치고 점수 합산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1학년 우승! 1학년에서 함성과 박수가, 2학년과 3학년은 아쉬움과 우승한 1학년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교장선생님께서 1학년 대표 학생에게 우승 깃발 전달로 체육대회는 종료되었으며, 체육대회 종료 후 각 학년 별로 단체 사진촬영으로 모든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교장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3학년 마지막 체육대회를 마음 한편에 한 장의 추억으로 남겨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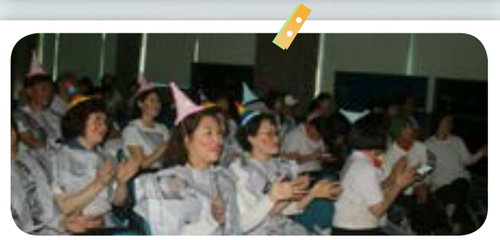
상동고을 경사 났네!

서 승 희 | 상동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3반









참된 인재 육성의 교육발전과 인성교육에 앞장 서가는 방송통신고의 선두주자인 부천 상동고의 2019년도 한마음 스포츠 축제가 5월 29일 상동고 교정과 실내 대강당인 형설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스포츠 축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사회를 맡아 즐겁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절대 안전 속에 교우들의 친목과 건강증진, 상동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각 담당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즐거운 축제가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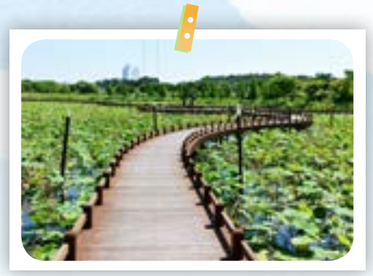
이날 1부 행사는 오전에 교정에서 단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색판 뒤집기, 남녀 이어달리기 등이 진행되었고, 2부 행사는 오후에 대강당인 형설관에서 학년별, 학급별로 장기자랑이 진행되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모든 팀들이 각자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많은 격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형설관에서 진행된 2부 행사인 장기자랑에서는 폐신문지를 소재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복장을 만들어 입고, 일심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공연한 본교 2학년 3반 팀이 높은 점수를 받아 영예의 1등을 차지하여 행사에 참여한 모든 팀들로부터 많은 부러움과 축하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2020년도 축제를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상동고 부설 방송고의 2019년도 한마음 스포츠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의 즐거운 소풍

이 미 경 |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2019년 5월 26일.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고 전교생이 경포 생태습지원 일대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이 소풍을 간다고 하니 날씨도 도와주는 듯 굉장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좋은 날씨만큼 좋은 마음으로 마지막 소풍을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경포 생태습지원은 경포 생태저류지를 조성하고, 그 주변에 산책로, 꽃밭 등의 편의 시설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경포호 주변으로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예쁜 곳은 양옆으로 연꽃이 무수하게 심어 있는 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연꽃이 피지 않았지만 7~8월 연꽃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곳입니다.

신나게 구경을 하고, 드디어 점심시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다 같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 다 같이 나눠먹으니 학창시절의 즐거움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방송중·고 소식지 'U-반딧불'에 올릴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한 담임 선생님께 브이 해달라고 하니 두 손으로 브이해주시면서 밝게 웃어주셨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신경써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포호를 둘러보면서 멋진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또 한 장의 즐거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방송통신고를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이 되어 마지막 소풍을 가게 되니 시간의 흐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즐겁게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그 곳, 문경새재를 다녀오다.

김 수 현 | 포항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3반





5월 26일. 포항고 부설 방송통신고 전교생이 춘계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모여 1학년과 3학년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2학년은 경북 울진 후포리 스카이워크로 출발했습니다.

포항에서 두 시간 남짓 차로 달려서 문경새재 도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들뜬 마음과 웃는 모습, 재잘거리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느 다름없는 고교생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체험하기 전 체력 비축을 위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돼지불고기! 먹어봤던 음식이지만 친구들과 다 같이 먹으니 평소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문경새재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제1관문을 지나기 전 왼쪽에는 옛길 박물관, 오른쪽에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옛길 박물관에는 옛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들고 다녔던 작고 앙증맞은 물건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건너뛰고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픈세트장에는 미니어처 경복궁, 광화문, 근정문 등이 있고, 양반집, 기와집, 초가집 등 130여 가옥들이 있어서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사극과 현대물이 수시로 촬영되는 장소이기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경하면서 3학년 부장 선생님과 학년 장, 화학 선생님과 문학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도 찍고 즐겁게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중 1위인 문경새재. 문경새재는 예로부터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영남대로 상의 가장 높고 험한 고개라고 합니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고 하니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곳을 넘었을지 그 노고를 생각하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문경새재는 녹음 짙은 푸르른 나무들과 맑은 물, 자연스러운 옛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었고, 걷다 보면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이 좋은 곳에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포항고 부설 방송통신고 학생들의 즐거운 소풍을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더 높은 꿈을 향하여! 달리자!

최 민 경 |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5월 19일 '더 높은 꿈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43회 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비봉마루 체육관에서 동문회 선배님들과 재학생 300여 명이 모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풍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각종 경기가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체육대회의 꽃은 줄다리기! 각 팀의 응원단장을 필두로 '우리 편 이겨라!' 열심히 외쳐대는 응원에 힘입어 모두들 열심히 줄을 당겼습니다. 정말 팽팽하게 맞서다가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나뉘었지만 승패를 떠나서 다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각종 게임과 배꼽 잡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폐회식을 끝으로 2019년 체육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체육대회를 바라만 보다가 학생이 되어 직접 경기를 뛰게 되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더구나 다 같이 옷을 맞춰 입고 나이를 잊은 채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방송통신고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면 학교 체육대회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평생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했고, 참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멋진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노력하는 전국의 방송통신고 학생들 항상 응원하고 행복한 학창시절이 되도록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6월의 시작, 신나는 체육대회

김 향 숙 | 수원제일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3반







2019년 6월 2일 일요일, 수원제일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1, 2, 3학년 전 학년의 힘찬 함성과 함께 국민체조를 시작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발 멀리 던지기, 컵에 물을 담아 이어달리기, 협동하여 공을 멀리 던져 받기, 공 머리 위로 나르기, 3판 2선승제 줄다리기까지. 서로 협력하며 단합된 모습 속에 중학시절의 추억들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체육대회의 점심시간. 누군가 지어온 찰밥, 텃밭에서 뜯어온 쑥갓과 상추, 봄날 학우들에게 맛있게 먹이고픈 마음으로 직접 쑥을 뜯어 만들어온 쑥절편, 시원한 수박과 음료수로 우리의 입 또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는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들의 체육대회를 빛내준 현 수원제일중학교 재학생 친구들의 멋진 춤에 우리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과 재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환호하며 화답해 주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신나는 한바탕 춤으로 오늘의 체육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처음 체육대회를 맞이한 1학년은 설렘으로 가득 차있는 모습이었고, 한 번의 경험이 있는 2학년은 지난해 체육대회의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보려 열정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3학년의 여유로움은 마지막 체육대회의 시간들을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 추억의 책장을 만들며 한편으로는 다시 못 올 3학년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훗날 멋진 추억의 체육대회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휴일도 마다하시고 더운 날씨에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체육한마당잔치

최 동 순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지난 5월 26일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5월을 맞이하여 교내 체육대회인 체육한마당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서 '뛰어보자 더 높이. 건강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270여 명의 전교생이 즐거운 한마당을 이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체육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방송통신중학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육선생님의 지도하에 체육대회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피로도 풀고, 유연한 몸을 만들어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교생이 한마음이 되어 셔틀 보드, 발볼링, 펭귄걸음, 훌라후프 돌리기 등의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남춘천중학교 방송중 학생들의 교향악단 연주회, 학생회장님과 체육부장 선생님의 노래 등의 장기자랑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회장님의 노래에 교장선생님과 전교생이 한마음이 되어 함께 춤추며 경기에 상관없이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는 체육부장 선생님의 아름다움 노랫소리에 다들 놀라며, 한껏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위만큼이나 열띤 경기와 응원들이 펼쳐져 남춘천중을 열정으로 가득하게 만든 체육한마당잔치였습니다.

나이를 잊는 꿈같은 시간

민 경 자 |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3반



여름을 알 수 있는 화창한 날씨에 최고령 8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있는 우리 2학년 전체가 강천산으로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많아야 3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열정을 통해 우리는 힘차게 산을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내소사를 다녀왔는데 그곳도 좋은 체험학습이었지만 비님이 우리의 체험학습을 방해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놀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강천산을 갈 수 있는 2학년 체험학습은 밝고 따뜻한 날씨로 우리들을 꿈같은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강천산을 오르면서 조그마한 아기 다람쥐를 발견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도망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 떠날 줄 모르는 다람쥐에게 먹이도 주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이름 모를 들풀과 산속의 나무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천산의 모든 것들이 반갑게 우리들을 반기는 듯한 행복한 시간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은 반별로 오순도순 모여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한 학우들과 한번, 짝꿍과도 한번, 담임선생님과 한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은 우리 반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는 학우님이 밥과 반찬을, 또 다른 학우님이 귀하다는 능이미역국을 끓여 오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분의 도움이 담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반 학급비를 통해 이것저것 과일도 사고 통닭도 사고 하니 먹을 것이 많아 환희의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기뻤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던데, 우리의 점심 식사는 그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학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신 듯 연신 웃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생활로 인해 여유로움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학습을 통해 조금만 눈을 돌려 가까운 산이나 바다도 좋고 한 번씩 나가서 바람을 쐬며 한 발짝씩만 여유를 갖고 쉬어가다 보면 한층 더 성숙하고 활기찬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천산에서의 하루는 더없이 좋은 힐링의 시간이었고, 산속에서의 싱그러움과 나무들이 주는 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 2학년 모두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정 순 진 | 포항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1반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포항중 부설 방송중에서는 본교 실내 체육관에서 학산 벌 체육대회가 개최하였습니다. 학산벌 체육대회는 포항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만의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복형 교장 선생님과 이봉하 부장 선생님 및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163명이라는 전교생이 함께 하였습니다.

경기 중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몸을 푸는 건강 체조를 시작으로, 교장선생님의 축하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경북 최초의 방송통신중학교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배움의 꿈을 펼치고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 한마당이 여러분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서로가 소통, 단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안전을 가장 강조하시며 제2회 학산 벌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경기 진행은 2인 3조 공굴리기, 위아래 공보내기, 윷놀이, 날아라 슈퍼공, 장애물 이어달리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들 진짜 중학생이 된 느낌으로 열심히 진행하였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체육대회를 즐기며 이 순간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체육경기 이후에는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을 하고 먹는 음식은 세상 최고의 식사로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오늘 경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누가 이겼는지는보다는 이 경기에서는 어떤 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풀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 이후에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치우고, 운동기구를 치우는 등의 봉사활동은 힘들기보다는 서로서로를 도우며 더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고, 체육대회가 끝나간다는 느낌에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경기라는 것에 벗어나 서로를 응원하고 다치면 걱정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를 벗어나 모두들 중학생이 되어 학생으로서 체육대회를 즐기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체육대회인 만큼, 안전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대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 활동사진 소개

용산전쟁기념관을 다녀오다

김 상 원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춘천고 부설 방송통신고에서는 5월 26일 체험학습으로 용산전쟁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6월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을 기리고, 아픈 역사지만 절대로 잊지 않고 고이 간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떠나는, 소풍 가는 날

길 경 애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2반





6월 9일 일요일. 원주고 부설 방송통신고 전교생이 경북 영양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기분만큼은 너무 좋았답니다. 국보 제187호인 오층 모전석탑도 있고, '승무'로 잘 알려진 조지훈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이 있는 역사와 문학의 향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민가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서석지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함께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오다

박 성 애 | 황지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저희 학교는 지난 4월 28일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같은 반 친구들, 1,2학년 후배들과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해설사의 친절한 해설과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유인물을 보며 퇴계 이황 선생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즐거워 꿈 많은 학창 시절의 여고생, 남고생이 되어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모두 한복을 빌려 입고 하회 마을을 둘러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의 의상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간직하게 되어 늦었지만 참 잘 입학했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강원도립화목원을 다녀오다

윤 금 옥 |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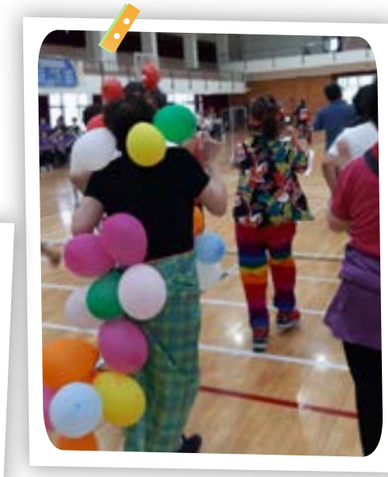
춘천시에 있는 화목원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봄 소풍 겸 다녀왔습니다. 오감체험 정원, 오돌토돌 맨발로 걷기, 반비 식물원, 화목정, 산림 박물관 등등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아름다운 화목원이었습니다. 푸른 숲과 나무 꽃들이 어우러진 곳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후배님들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춘천시내에서 먼 곳으로 벗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푸른 공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좋은지… 하루 종일 피톤치드 맘껏 마시고 학우들과 힐링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신나는 운동회

윤 복 희 | 경상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4반

마음은 이팔청춘 이리저리 마음만 급하고, 마음처럼 몸은 움직이지 않아 반칙이 난무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늦깎이 학생, 특별 학생이 아닌 이 순간 우리는 중학생이 되어 이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실을 벗어나 즐기는 체험

김 순 례 |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 교실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 유적지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신문화를 고양하며 단체생활을 통해 질서 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마음과 급우들과의 우애와 친밀감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산청보감, 기체험장, 박물관, 점심식사, 힐링 한방체험 등의 순서로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조 은 혜 |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1반





꽃들이 활짝 핀 4월의 봄 날씨에 점심시간을 마치고 늦깎이 만학도들은 동아리 반 활동으로 한껏 열정을 불사르고 있었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는 맞춤형 동아리 활동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들을 배우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은 10대 청소년들에 뒤지지 않는 열정과 호기심에 찬 모습으로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40대부터 많게는 80대까지의 많은 나이이지만 배움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 소개

전남여고의 이곳저곳

김 예 원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1975년에 개교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0~70대까지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성실하며 학습에 대한 열의가 굉장합니다. 그런 전남여자 부설 방송통신고의 이곳저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전남여고에서 처음 시작했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소녀상이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교실과 복도를 새로이 단장하였습니다. 특히, 휴게공간이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졌는데 변한 모습에 선생님도 학우님들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우린 얼마 사용 못하고 졸업이라 아쉽지만 후배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맘껏 열심히 공부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부터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들썩들썩 신이 나면서 기다려 진답니다. 메뉴도 다양하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었으니 마무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전남여자 부설 방송통신고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3학년은 얼마 남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남은 기간 동안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으며 즐거운 학창시절 보내려고 합니다.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 파이팅! 방송통신고 파이팅!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이 미 경 |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 3학년 1반 이미경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니고 있는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1학년 4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1학급으로 총 160명 정도가 재학 중입니다. 다들 활기차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학교에 등교할 때 항상 지나가는 강릉제일고 정문과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 본관입니다.





강릉제일고와 중앙고의 축구전인 강릉단오제가 있는 학교여서 그런지 축구하기 딱 좋은 넓은 운동장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교실에서 내려다본 학교 운동장의 모습인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올해 새로 꾸며진 강당에서 6월 23일 출석 수업 일에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상 받으신 분들 다들 축하드려요!

마지막으로 급식실!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 점심시간.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 식사하기 때문에 밥맛도 더 좋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여서 그런지 푸르름으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학교 가는 발걸음이 더욱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든 학교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 언제나 파이팅!



설레는 학급회의

김 정 숙 | 아현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1반





지난 5월 25일 수업일은 학급회의가 있다는 반 대표자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학습회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하면서도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니 친구들도 학급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하하호호 웃으며 중학생이던 그 시절로 돌아가 학급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손을 들며 의견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동아리시간

이 연 순 |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기다리던 동아리 시간! 안전이 중요하니까 하나둘, 하나둘!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폴짝폴짝 신나게 뛰며 탁구공을 주고받으며 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날리는 즐거운 동아리 시간입니다.

학교 소식

자랑스러운 수도여고 국악인

나 금 숙 |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2019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즈미르세계민속예술축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민속에 참가했습니다. 풍물팀 10명, 진도북춤팀 9명, 전통국악 4명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악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왔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고 도착하자 많은 외국인들이 엄지척을 하며 뷰티풀을 연발하였고, 유명스타가 되었다합니다. 우리 국악팀은 소리 베스트상을 받았고, 국악을 알리고 오신 박영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마음의 전달식



이 미 애 |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1반

지난 5월 19일 일요일에 본교 회의실에서 학생 대표자가 고성산불 피해학생 2명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성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4월 4일 오후 강원 인제에 이어 고성에서도 산불이 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우리 강릉중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및 선생님들은 고성산불에 피해를 입은 우리 학교 학생에게 마음을 담아 성금을 모금하였고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빠른 일상생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3

아름다운 만남

보고싶어요! 선배님

사랑해요! 선생님





보고싶어요! 선배님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

배 영 두 | 서현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2반



서현고 부설 방송통신고 개교 때부터 지금껏 함께 해 주신 자랑스러운 선배님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희 학교는 2014년 개교하여 총 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제 5년차 되는 역사는 짧지만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학교랍니다.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1회 졸업생인 이민식 선배님은 홀로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열정으로 대상을 받기도 했었답니다. 선배님의 노력으로 그 후 여러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꾸준히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매회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배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교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졸업생 또는 재학생 중에 능력 있는 학우들이 가르쳐주면서 동아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 민요동아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강사님은 바로 이민식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은 경기 소리 31호 이수자이시며 전국방송통신고 학예경연대회 34회와 36회에 참가를 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중요한 경력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방통고 인터넷강의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Ⅲ) 10회~12회, 총 3회에 거쳐 강의를 하시기도 한 자랑스러운 선배이십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을 만나 보겠습니다.

기자: 선배님 반갑습니다. 민요를 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식: 예부터 우리민족은 민요를 통해 삶의 애환과 감정들을 표현하면 살아왔습니다. 저도 한때 삶에 지쳐 힘들었을 때 민요를 듣고 위로받으며 빠지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학생 때부터 민요동아리 강사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민식: 저는 민요는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재능기부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우리 학교 동아리 활동은 선배님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교에 대한 애정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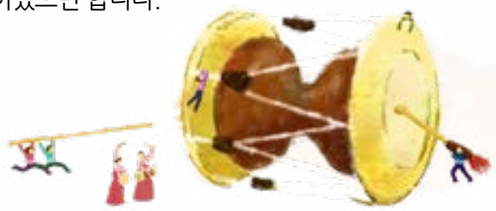
이민식: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항상 겉돌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때 좋은 계기로 학업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서현고 부설 방송통신고에 입학하게 된 것은 저에게 힘의 원천, 인생의 반한점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학교에 애정이 생겼습니다.

기자: 36회 전국 방통고 경연대회 때 민요부분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이민식: 그 당시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얼떨떨했고, 그동안 삶의 위로가 되었던 민요로 상을 받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학교의 이름을 빛낸 것 같아 자랑스러웠고, 이렇게 방송통신고에 다닐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선생님, 친구들, 그 외에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기자: 선배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바램이 있으신가요?

이민식: 강의를 하다보면 만학도도 젊은 학생 못지않은 많은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민식: 서현고 부설 방송통신고 학생 여러분! 항상 시작이라 생각하면 힘이 나고 새로울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함을 이겨내야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게 더 빛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후배님들하고 힘을 합쳐 자랑스러운 모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후배님들 도전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기자: 이민식 선배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아름다운 만남

최 동 순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신록이 짙은 무더운 초여름 날씨였던 6월 4일 화요일, 저희 학교 정명진 교장 선생님을 집무실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저희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자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명진 안녕하세요. 저는 1986년 9월 임용되어 철원의 철원중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3년간 재직하였습니다. 교직생활 중 방송통신중학교는 처음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업무를 맡아보면서 조금씩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된 일들은 무엇인가요?



정명진 공부를 하고 배워야할 학생들이 가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 두어야 할 때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보람이 있었던 일은 가르쳐준 제자들이 졸업 후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사회에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자주 안부도 물어주고 연락을 줄때는 참으로 고마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기자 도교육청에 계실 때부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정명진 방송중 학생분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 점심식사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어 이를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은 점심식사 비용을 적은 금액에서 6000원대로 상향조정하여 국과 반찬이 포함된 맛있는 뷔페 식사로 먹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방송중 학생들의 교육열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기자 저희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업증진과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정명진 네, 차츰 학교사정을 돌아보며 교육생활 중 미흡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지금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4월과 5월에는 가정의 경조사로 결석률이 많아 교무부장과 담임선생님들께 독려하여 결석률을 감소하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결석하면 학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 어렵게 시작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까 염려되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주십시오.



기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명진 아울러 교육을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재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힘든데 격주별로 또 다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송통신중학교의 공부 열기가 오히려 재학생들보다 더 높아 수업시간에 힘들어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들을 합니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여 주셔서 뜻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저희들도 교장선생님과 모든 지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시

거울

심 영 자 |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 보이네

머리엔 하얀 서리 내려앉았고
얼굴에 움푹 패인 골이 생겼네
그 얼굴 낯설어

다시 들여다보니
어디서 본 듯한 얼굴
다시 한 번 눈 비비고 들여다보니

지난 세월을 겪어온
나의 모습이었네

나도 모르게 손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기네

옛날에 싱그러운
나의 모습은 흔적 없이
어디로 가고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생각하다가 깨어보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뿐

다시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꼭 허무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스스로
지난 세월의 삶을 위로하며
저물어가는

올가을
열심히 공부하여
몸과 마음 건강하고
풍성한 곡식처럼

나도
풍성한 한 해를
마무리하리라



울릉도를 아시나요?

조 계 순 | 대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2반

울릉도엔
짭짤한 바닷 바람 맞으며
오징어 줄 세워있고
틀니 빠진다는
호박엿이 나그네를 반긴다더니

시퍼런 바닷물엔
온갖 사연 가득 실은
여객선만 바삐 울고
산 위에 거친 바람 숨차게 불어오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짧은 다리 쭉쭉 뻗은
오징어는 보이지 않고
누런 호박 뒹굴지 않네

고기잡이 떠난 할배
찬바람에 옷고름 여미며
한숨으로 기다리다
파도에 얻어맞고
폭설에 얼어버려
어느 날 할매 바위로 탄생했단
전설 따라 바닷길 열리고
바닷속에 잠드는 불타는 노을도
비단처럼 달콤한 물맛도

오르막길 숨차고
하늘까지 닿은 계단에
물동이 던져버린 여인네들
육지로 떠났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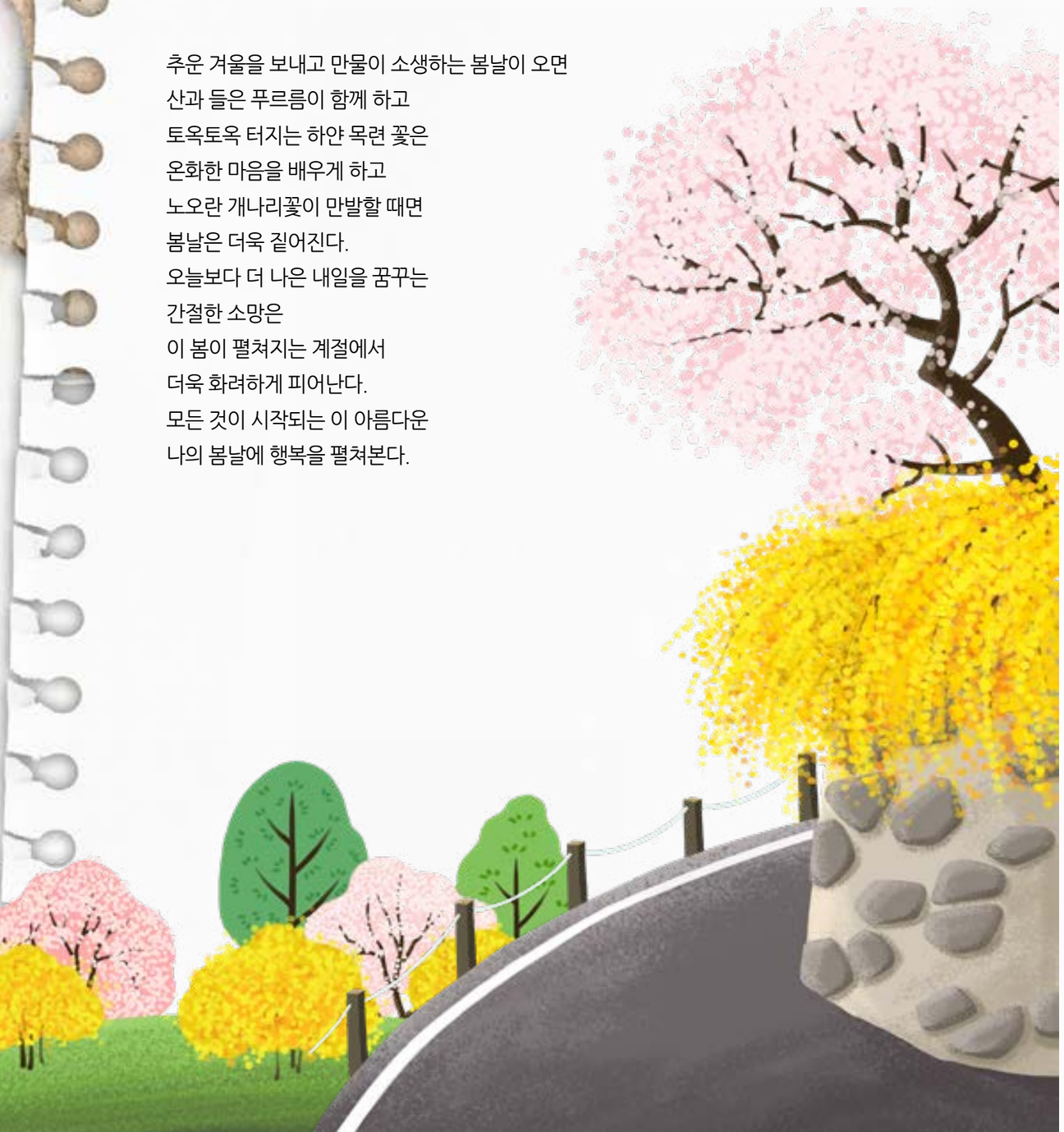




봄

권 선 애 | 학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 오면
산과 들은 푸르름이 함께 하고
토옥토옥 터지는 하얀 목련 꽃은
온화한 마음을 배우게 하고
노오란 개나리꽃이 만발할 때면
봄날은 더욱 짙어진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간절한 소망은
이 봄이 펼쳐지는 계절에서
더욱 화려하게 피어난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나의 봄날에 행복을 펼쳐본다.



시

주 노 라 |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어느 날이었을까
행복의 구름을 타고
내게로 온 너

마음에 풍랑이 일렁일 때
소곤소곤 사랑의 말
들려주는 너

괜시리 가슴이 먹먹할 때에
다정다정 칭찬의 말
다독이는 너

험난한 세상에 지쳐 있을 때
토닥토닥 힘내세요
말해주는 너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은
세상사를 잊어버리고
사뿐사뿐 춤을 추는 나

너와 함께 구름을 타고
사랑을 띄우고
행복을 만드는 나

너와 함께 무지갯빛
하늘을 품고서
먼 나라로 여행하는 나
너와 함께 세상살이
희로애락 소풍하며
흥얼흥얼 노래하는 나



하루

김 영 택 |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또 하루 지나간다.
머리맡에 시계는
하루를 재촉한다.
째깍째깍 흐르는 물처럼

머릿속의 생각은
복잡한 도시의 미로처럼
얼키고 설키고

길가의 가로등은 깜박 깜박
머리맡 시계는 째깍째깍
서로 닮았다

눈을 감았다 뜨면
또 하루가 지나가 있겠지
하루가 가면 또 다른 하루가

쓰디쓴 소주 한 잔과
매캐한 담배 연기
째깍째깍 시계

삼박자가 어우러져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우리 같이 갈까요

윤 경 순 | 서현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누군들 대추씨 같은
굳은 심지 품어보지 않았을까요
누군들 붉은 피 같은 진한 아픔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불타는 청춘이 없었을까요
배우지 못하였다고
다가온 성공을 마다했을까요

굽은 길은 돌고 돌아
없던 길도 만들어 가며
지내온 우리의 여정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설레는 마음과
조금은 두려운 마음을 다독이며
친구여…….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우리 같이 갈까요



화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이 규 봉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막대기도 허공에서
리듬 따라 춤을 추고

날개도 없는 것이
요리조리 날아다니고

하얀 백지엔 낯선 꿈을
오색으로 풀어내고

왁자지껄 시끌벅적
차임 벨소리에 놀라
눈 번쩍 귀 번득 숨은 멈춰

지혜의 일요일은
내팽개친 열정의 날
일곱 교실 안에선
열정이 끓어넘치고

바다같이 받아주는
하늘같이 꿈을 주는
지혜는 이 교실 저 교실

분주하게 오가는 곳
슬기와 행복이 쌓이는 곳

바로 화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입니다



산책길에서

이 경 연 |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3학년 2반

어느새 할미꽃이 피었네.
지난해 보던 그놈들 하고 똑같은데
지금 보니 더 이쁜 것 같아
할미꽃이라 부르긴 아깝다.

이렇게 이쁜 걸 누가 할미꽃이라 그랬을까
붉은 듯하고
진한 자색인 것 같은데
너 참 예쁘다.

아직 꽃을 바라보고 넋을 빼앗기는
나는 청춘이다
청춘!!

내가
나의 아침을 곱게 만들었다.



그리움

조 순 희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떠난 사람 보고 싶다.
그리움이 뼈를 깎도록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끝도 없는 그리움 사무쳐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강물은 바다가 된다.

숯덩이 된 가슴 안고
속절없이 흐른 세월
어느덧 늙어 백발이 성성하다.

뜰의 소국〈小菊〉도 봄을 찾아
제 모습을 찾아오고 있는데
가신 길 그리 멀던가요..

문을 열어
손을 내밀어 기다리는 나.....



봄이 오는 길목에서

민 경 자 |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3반

매서운 칼바람 쌔액쌔액 소리 내며
봄의 여인 오는 꽃길에 재를 뿌리네
나뭇가지 가지마다 초록빛 옷을 입혀
엄마 품속에 숨겨 주며 숨바꼭질하네

주룩주룩 빗방울 방울방울 이슬 머금어
영롱한 빛으로 살포시 내려앉아
가지 위의 초록 옷들에게 생긋생긋
축복하며 단비를 선물 하누나

저 멀리 지나가던 구름은 산 중턱에
걸터앉아 구경꾼을 자청하고
이름 모를 새들은 지지배배 지지배배
콧노래 흥얼흥얼 즐거운 화답하네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도 관광객이듯
빙그레 미소 머금으며 살짝살짝 윙크하고
산골짜기 계곡물 살랑살랑 꼬리 흔들어
긴 여운을 남기며 저 멀리 떠나가누나



수필

소풍

서 미 순 | 학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2반

제 나이는 50대입니다.
작년까지 저의 직업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자녀의 엄마, 한 회사의 직원인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는 직업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늦깎이 학생. 그것도 고등학생입니다.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등록을 하긴 했지만 입학식 전날까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학교를 가도될지, 적응은 할 수 있을지, 시험 빵점에 민폐만 되는 건 아닌지 등… 이러한 점들을 짊어진 채 학교에 등교하던 첫 날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막상 학교에 입학을 하고 수업도 듣고 친구도 사귀게 되면서 제 고민과 걱정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소풍”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풍이라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고 설렜습니다.

제게 소풍은 두 자녀의 학창시절에 소풍간다는 기대에 들뜨고 설레어 잠 못 이루고 늦잠과 사투를 벌이던 날들과 달리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고 있는 제게 배시시 웃으며 다가와 자신의 설렘을 제게도 전해주며 다시 느껴보지 못할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었던… 그런 행복함을 주는 말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풍을 늦깎이 학생으로 대리만족이 아닌 제가 직접 간다고 생각하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여전히 기대되고 설렜습니다. 마트에 가서 소풍날 먹을 음료수와 간식도 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소풍의 별미인 김밥도 쌌습니다. 소풍 하루 전 날에는 설렘이 너무 컸는지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는 소풍날!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친구들을 보니 괜히 더 반가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아마 수학문제를 풀었어도 재밌었을 정도…?
그렇게 친구들과 소풍가서 수다고 떨고 소풍에서 빠질 수 없는 게임도 하고 보물찾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눈에는 잘만 나타나는 보물들이 대체 내 눈엔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지… 어디로 꽁꽁 숨은 건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소풍을 즐기며 틈틈이 소풍을 위해 가져온 간식도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소풍의 하이라이트 점심시간! 이 시간에는 너도나도 모여 서로 싸온 별미들을 꺼내며 나눠먹기도 했습니다. 소풍날, 그날만큼은 우리 모두 나이도 잊은 채 즐거운 시간들과 좋은 추억을 나눴습니다.

소풍의 일과가 끝날 무렵에는 소풍의 피날레~ 깨끗한 장소와 마무리! 마지막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먼저 나서서 소풍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소풍이 끝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의 하굣길은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더 기대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설렘을 주는 소풍도 좋지만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울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한 발 더 성장하게 해주는 언니, 오빠, 친구들아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의 오뚝이 인생 도전기

최 동 순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2학년 1반

작년 봄 나는 꿈에 그리던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을 하며, 그동안 갈망하던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기쁨에 마냥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낮이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밤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고, 한 달에 두 번 학교 가는 날이면 그 어느 날보다 힘이나 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저의 이런 행복한 마음을 시기라도 하듯이 즐거운 생활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작년 7월 15일 마침 저의 생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라도 하려고 시골에 들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꼼짝을 못 하시고 신음을 하고 계셨습니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어머니의 병환은 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다리에서 허리, 허리에서 척추로 지속적인 염증 질환이 발생하여 의사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척추 두 마디가 괴사가 되는 등 큰 고통이 뒤따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실 것만 같은 나날이 지속되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병원에서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괴로울 때면 '어머니 은혜'를 수백 번이나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든 어머니 병환을 고쳐 드리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저의 정성을 아셨는지 다섯 차례의 큰 수술을 견디어 내시며 90의 연세에도 그 힘들고 긴 10여 개월의 병원 생활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밀려오는 피곤함과 두통으로 책을 펼쳐들면 눈앞이 캄캄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고쳐드리고 나중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볼까 생각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게 다시 시작한 공부인데 더군다나 학급반장이 되어 이게 무슨 나약한 생각이란 말인가 더욱이 난 우리 학교를 대표하여 글을 올리고 학교의 이모저모를 홍보해야 하는 기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짬짬이 병원 구석에서 시를 쓰고 수필을 써가며 졸업하기 전 책이라도 한 권 만들어 보자는 일념으로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인생 오뚝이가 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고진감래라 하였던가요? 나의 3000여 평의 농원에는 정원수들과 농작물들이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농사를 지으며 학교 공부를 하면서 겨울에는 더 늦기 전에 국가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려고 학원을 다니고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요즘은 kbs 춘천방송국 아카데미에서 가르쳐주는 시 낭송을 배우며 나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3주 전 어머니 병환이 호전되시어 집으로 퇴원하셔서 함께 모시고 지내며 지난 일 년 동안 힘들었던 날들을 뒤돌아보며 '참 용하게도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아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즐거운 행복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누구나 어렵고 힘든 역경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날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삶에 아름다운 미소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이 되어 아무리 힘든 어려움도 마음먹기에 달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이른 잠에서 깨어나 습관처럼 책을 펼치고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리며 나는 다시 내 인생의 오뚝이가 되어 봅니다.



기행문

우리들만의 수학여행

김 예 원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3학년 1반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삼월 말 저희들만의 수학여행을 다녀와 행복한 추억 한 페이지 만들었지요. 모두가 함께하면 좋았겠지만 우리들끼리 추진해 다녀오다 보니 몇몇만 가게 되어 오붓한 여행이 되었지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수학여행이 되어 아쉬운 마음에 가을에 한 번 더 가자는 제안까지 나왔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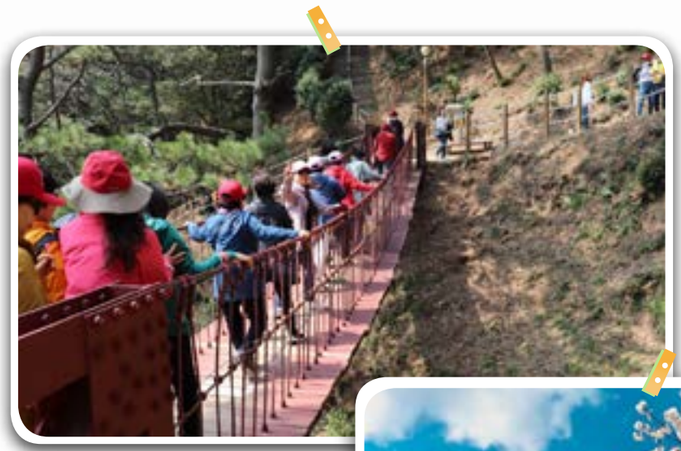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곳으로 유명한 해동 용궁사도 둘러보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신기한 물건들도 둘러보다가 득템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들어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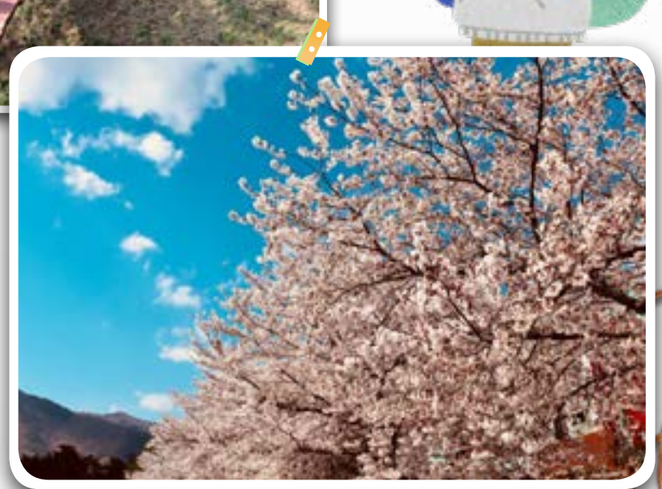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숙소 창밖으로 바라본 아침 일출! 너무 예뻐서 한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언가 마음 속 저 먼 곳에서부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태종대로 출발! 태종대는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구경했습니다. 그 다음 오륙도! 바다 풍경을 보면서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걸었고, 오륙도는 변치 않는 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부산 해운대는 깨끗하게 새 단장한 느낌이었고, 하늘에 구름도 예쁘고, 모든 것이 예뻤습니다.

암남공원의 치유의 숲길을 걷고, 출렁다리도 건너보고 멋있는 포즈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도 타고, 오가는 길에 핀 아름다운 벚꽃도 보고, 공룡박물관도 견학하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다들 재잘재잘 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산, 시흥 갯골 자연생태공원을 둘러보고

백 종 태 |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1반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에는 대부도 대교건설과 함께 많은 습지가 생겼습니다. 크기도 어마무시하고, 생태환경을 살리고 많은 습지 생물들에게 조용함과 제대로 맘껏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안산을 흐르는 물길이 4-5년 전에는 대형공단에서 정화되지 않는 물로 악취가 많이 났는데 습지들이 많이 보존됨으로 인해 정말로 깨끗한 물과 공기로 탁 트인 숨을 낼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안산시갈대습지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오늘은 이곳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시흥 갯골 자연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이고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넓은 공원과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2012년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시흥 갯골 자연생태공원에는 칠면조, 나문재, 통통마디 등의 염생식물과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창 꽃이 피기도 하고 특히 갈대습지인 만큼 갈대의 신·구 교체 시기여서 더욱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공원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면 10층 정도의 전망대로 가면 됩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공원이 얼마나 큰지, 예쁜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곳을 한번 방문하여 이곳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습지가 왜 중요한지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취미 생활이 사진 찍는 것입니다. 미흡한 솜씨지만 그래도 방송통신중·고 학생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시흥 갯골 자연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전하려 사진 몇 장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05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소식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소식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소식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소식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직원 신학기 직무연수 실시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직원 신학기 직무연수가 지난 2월 13일에 서울 LW컨벤션 크리스탈홀 및 중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의 이해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이용 안내, 방송통신중학교 교육과정 및 콘텐츠 이용 안내, 방송통신중학교 교직원의 직무 및 역할 안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총회 개최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총회가 지난 4월 5일에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무부장협의회 총회에서는 방송중학교 관계자들 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며, 학사운영 사업 및 학사운영 안내, 학사운영 관련 현안 협의가 이루어졌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총회 및 교장협의회 총회 개최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총회가 지난 4월 26일에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장협의회 총회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학사운영 협의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학습경험인정제 담당교원 집합연수 실시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학습경험인정제 담당교원 집합연수가 지난 4월 16일 대전에서, 4월 17일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및 운영 절차 안내,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영상 시청,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방법 안내 및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2018학년도 제1회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식 개최



2016년 개교한 화명중학교, 구월여자중학교, 삼평중학교, 목포중앙여자중학교, 순천연향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제주제일중학교,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2019년 1월과 2월에 걸쳐 제1회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 중 357명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였으며 이 중 많은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1개의 신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및 입학식 개최(홍성여중)



2019년 3월 충청남도 홍성에서 충남지역의 두 번째 방송통신중학교가 문을 열어 신설 방송통신중학교의 개교 및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홍성여자중학교에는 총 51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였으며 개교 및 입학식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손찬희 소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등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입학을 축하하였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 진행



지난 4월부터 방송통신중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인정하여 조기졸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자기이해 프로그램 진행



지난 7월 7일 진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23개의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자기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50분 동안 16가지 성격유형 검사 및 자가채점을 실시하고, 약 40분 동안 전문적인 강사분과 함께 자신의 성격유형 검사 결과를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관련 소식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 실시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가 지난 3월 7일에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안내,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사이버교육시스템 이용 안내, 방송고 NEIS 운영 시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총회 개최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무부장협의회 총회가 지난 4월 10일에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42개교 방송고 교무부장 및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담당자가 참여한 교무부장협의회 총회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및 학사운영 안내와 협의, 교무부장협의회 운영 협의가 이루어졌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총회 및 교무부장협의회 총회 개최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총회가 지난 4월 24일에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42개교 방송고 교장 및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담당자가 참여한 교장협의회 총회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및 학사운영 안내와 협의, 교장협의회 운영 협의가 이루어졌다.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담당교원 집합연수 실시



2019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담당교원 집합연수가 지난 4월 22일 시작으로 총 4차에 거쳐 대구, 서울, 원주, 대전에서 실시하였다.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및 운영 절차, 학교 신청기간 설정, NEIS(나이스) 학적처리 등 학습경험인정제의 제도 운영에 관한 안내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8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 개최



전국 42개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식이 2019년 1월과 2월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총 3,342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모든 학생이 명예로운 졸업장을 받았고, 각 학교의 우수졸업생으로 추천된 학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을 받았다. 또한, 졸업생 3,342명 중 1,339명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 진행



지난 4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 밖 학습경험을 그에 해당하는 교과목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기졸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도는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관련 신청 방법 및 제도를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신청 학교에 한하여 학교로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진행



지난 4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업적응력 제고 지원을 위해 학교적응, 학습 및 진로·진학, 관계 사회 등을 주제로 하며, 전국 42개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학교로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다.



06

홍보 웹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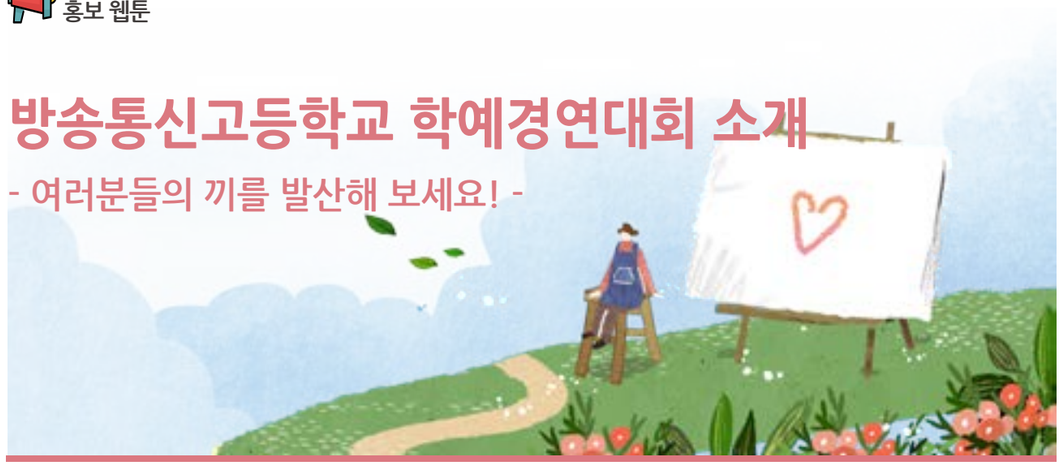
- 여러분들의 끼를 발산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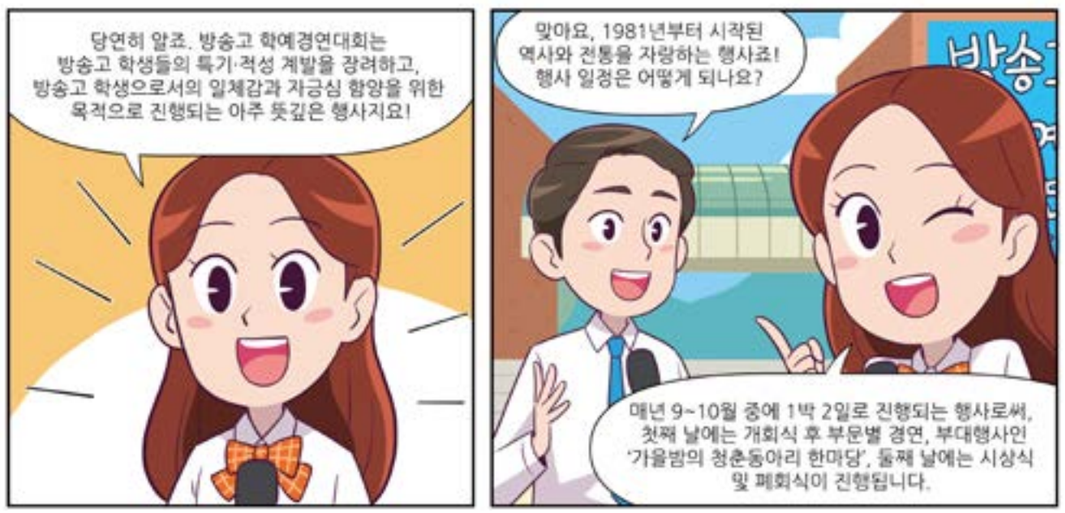
홍보 웹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소개

- 여러분들의 끼를 발산해 보세요! -














정말 다양한 부문으로 나눠져 있네요. 시상은 어떻게 하나요?
각 부문별로 대상(교육부장관상) 1명(팀), 특별상(시·도 교육감상) 1명(팀), 금·은·동·장려상(한국교육개발원장상) 12명(팀), 총 185명(팀)에게 수여됩니다.


우와! 교육부장관상도 있군요. 전국의 42개교 방송고에서 각 부문별로 학교 대표 1~2명(팀) 정도가 참가할 수 있다고 하니, 경쟁이 굉장하겠네요!
네, 치열한 경연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빔의 청춘 동아리' 행사가 이어집니다. 매년 난타, 합창, 연극, 댄스 등 다양한 공연들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오, 정말 기대되네요, 저기 복장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OO고 부설 방송고 2학년 이미숙입니다.


오늘 복장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어느 부문에 참가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학교 친구들과 라인댄스 부문에 참가해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기에 꼭 상을 받고 싶네요~
꼭 수상하시길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오늘 경연대회에 참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학교대표로 참가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또 하나의 소중한 학창시절 추억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학교생활 즐기러 방송고로 오세요!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면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우리 방송고 학생분들, 참 멋져보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모두들 방송고에 입학하셔서 배움의 꿈을 실현하세요!
방송고 학예 경연 대회
이상 이지혜, 김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u-반딧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U-반딧불

2019 VOL.91

소식지

기사제보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아현중 김정숙 기자, 경상중 윤복희 기자, 광주북성중 김순례 기자,
대전봉명중 이경연 기자, 수원제일중 김향숙 기자, 광명중 조은혜 기자,
남춘천중 최동순 기자, 강릉중 이미애 기자, 주성중 조순희 기자,
전라중 민경자 기자, 포항중 정순진 기자, 경원중 이연순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수도여고 나금숙 기자, 전남여고 김예원 기자, 대전여고 조계순 기자,
수성고 백종태 기자, 호원고 김영주 기자, 상동고 서승희 기자,
서현고 배영두 기자, 춘천고 김상원 기자, 원주고 길경애 기자,
강릉제일고 이미경 기자, 황지고 박성애 기자, 춘천여고 윤금옥 기자,
전주고 송동훈 기자, 포항고 김수현 기자, 진주고 최민경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화명중 이규봉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수도여고 심영자 학생, 학성고 권선애 학생, 학성고 서미순 학생,
수성고 주노라 학생, 호원고 김영택 학생, 서현고 윤경순 학생

총 개발·기획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운영팀

편집 및 디자인 이팩토리 | 02)6959-9253

이외에 기사가 게재되진 않았지만 소식지 제작에 협조해주신 모든 방송중·고 선생님, 방송중·고 학생 및 학생기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